

신행수기 당선작 (중단협의회장상)

작은 실천 큰 기쁨 ①

김민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또** 다른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37년을 하루같이 다니던 교직생활을 명예퇴직하고, 길잡이 핀들꽃을 보아도 처량함을 느끼는 50대의 늦깎이로 변모했다.

새벽잠에 뒤척일 식구들의 아침을 준비하며, 밤 막 푸른 새벽어둠 속에 울 함해 나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밀물처럼 주르르 흘러간다.

얼마나 어리석은 중생이었는지... 그해 겨울 나는 전남 고흥 송암사(松巖寺)로 내 몸 안의 방랑벽을 등에 지고 부처님께 받은 동안거 기도를 다녔다. 신사의 깊고 고요한 겨울밤은 텅그런 텅그런 혼들린 풍경소리와 함께 걸었다. 무수한 별들만이 환호하 내 머리 위에 빛이 내렸다.

평암사 적멸보궁에서 새벽예불 올리며 108항회를 하고 석가모니불을 간절히 불렀다.

(금강경)에 먼저 깨치고 난 행복기심(戒心) 뒤에 그 깨침이 재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것을 응수주수 행어보시(應無所住 行於布施: 내는 마음도 없이 보시를 하라)라 하신 가르침을 받고자 했을까? 마음을 다 바쳐 비로자나(法身佛) 부처님께 의지하고 수미노랑 노사나 부처님께 진리를 구하며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경관사업과 소책자마을 봉사'에 대한 사원을 세우니 어서 가서 경회하는 부처님의 손짓인양 아침이 문들을 넘어서 돌아왔다. (關)과 행(行)이 한결같이 지킬 화광

주지스님께 증명(證明)하고 1백일 기도를 시작했다.

수행이란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내면을 향해 걸어가면 긴 여정(旅程)'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근기에 맞게 열심히 닦아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더 없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닐까.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주관하는 팔만대장경 팔만 후원인 모집에 동참해 화주가 되었다. 경관 50매 동참분자가 되기를 서원하여 1경관 1인, 가족경관 19



그림 · 문병성

서 기쁘게 주거나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보시가 아닐까. 어떤 베풀음을 받았을 때 무엇보다도 좋은 보답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아닐까? 나는 진정한 타인에게 기쁘게 베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 음 속에 자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비굴한 마음, 과소평가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굴할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생활이 완성되게 하시고 수행으로 가는 길을 알게 해주신 부처님께 머리숙여 공경드린다. 경전을 읽는 즐거움보다 조그마한 행(行) 한가지를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체험하고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길 항상 노력한다.

98년 5월3일, 그날은 백일기도 화합일이요 부처님오신날이기도 하며 경관 50매 동참이 이루어진 날이니 어찌 기쁨이 더욱 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 세상 수많은 인연들이 여름의 뜨거운 햇볕에 얼얼하게 가기도송아처럼 '나'가 누구인지 '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차츰차츰 새겨 나갔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가르침의 도량인가 싶다.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팔만대에 경관 50매로 동참한 것과 함께 시작한 소책자마을 봉사도 이런 서막한 마음이 사라졌다. 굽은 두 손을 합장하며 반겨주고 따스히 손을 맞잡아주는 소책자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누구에게든 도란도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소책자마을 사람들은 물론 어른이지만, 장신제, 지체장애, 시각·청각장애,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등으로 정신연령은 다섯살 남짓한 어린아이들처럼 산다. 그저 몸이 편하고 먹는 것만 있으면 마냥 좋아하는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마을이다. 이들에게 빈 병이나 캠프를 모아 펼쳐어 보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날부터 빈병이나 캠프를 모으기에 나섰다. (계속)

디지털 팔만대장경 권선하며 瞋心 닦아 수행은 자기내면 향해 걸어가는 긴 여정

**나**의 간청에 섰을 가족 경관을 후원해 주던 사람들, 1구좌 1구좌 정성껏 후원해 주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행위인 선근(善根)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줄 모르고 "저 사람은 나에게 좋게 해준 사람이다" 하고 감사하기만 했다. 1백여명이 동참하는 동안 이제는 그 사람과 그의 좋은 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 보는 각단이 생겼다.

늦바람난 여자처럼 왜 그리 열심히나, 종교란 직장이 아니라 한다면 남들도, 만류하던 아들도,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거절했을 때 미워했던 그 친구

시대인지도 모르니?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무안을 주었을 때, 봄은사에 다니는 친구가 "봄은사에 가서 권선하면 더러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아! 진심을 닦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배우기도 한다. 수행을 많이 했다 하는 짐같은 사람들 중에도 조금만 마음을 건드리면 진심이 터지곤 하는데 이 어리석은 중생의 '진심타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진심을 닦아가는 많은 상황 상황 속에서 진심을 닦으면 세상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조금씩 눈을 떠가게 되었다.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음지와 양지가 있다. 고통하고 동창회, 강승회(강동 교육청 초등학교 서무부장들의 모임), 나의 모교인 재경보문중학교 동문회 이사회에서는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후원을 기쁘게 받아주어 이 세상은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각각자 서로 배울고 서로 의지하며 보시(布施)를 배우고, 이해타심을 떠나

# 伽山智冠 編著 伽山佛教大辭林 출간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림 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伽山佛教大辭林 구입및예약회원 안내**

가산불교대사림 편찬 사업을 후원하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伽山佛教大辭林 회원'으로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원 동참은 가산불교대사림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가격은**

- 1-2권 각 115,000원(기타), 3-15권 각 150,000원(년간별 예정)
- 가산불교대사림 전권 예정 가격: 2,180,000원

**■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 본원발행 구입시 10%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 전화 주문시 발송하여 드립니다.
- 그외 본원거래약서상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전권(15권) 예약회원이 되시면**

- 예약회원은 불교대사림 발간(총15권, 년간2권 발간예정) 즉시 어느곳에서나 받아보실 수 있으며, 앞으로 본 사전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차액은 본 연구원에서 부담합니다.
- 전권의 예약회원이 되시면 20% 할인하여 1,750,000원(유권표 포함)으로 각 권 출간후 바로 무공백 드립니다. 또한 3개월(₩583,000원)에서 6개월(₩291,600원), 1년(₩145,800원), 2년(₩72,900원), 3년(₩48,600원), 4년(₩36,500원), 5년(₩30,000원)까지 분할납입이 가능합니다.

**■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 월 1만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 회원이 되시면**

- 위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도서에 대하여 2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본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연구회 및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모니러가 되시면 본원의 발전을 위한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회비는**

- 본원으로 직접 발송 납입하거나, 지.코(7606753) 또는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기업은행: 277-006129-04-020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 국민은행: 031-01-0384-966
- 이시원(가산불교)
- 우.체.국: 013201-0012357
- 가산불교

"2500년 불교사에 있어서 세계 최대 표제어를 수록한 불교대백과사전"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일반불교술어 및 한국불교술어의 정지한 /차별집"

"세계불교학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한국불교학 및 인문학 연구전통의 새로운 지평"

**□ 규모**

- 전체 총합목수 15만여 항목(표제어)으로 현재 간행된 국내외 사전 총 회다항목계
- 권수 4×6배판 1200여쪽 정 15권
- 출간 권 1행(가과) 항목수 8234
- 권2 1행(과) 항목수 7697

**□ 책임기간**

- 1차 / 기초작성기간(1차 표제어 발굴 및 정리)1982년-1991년
- 2차 / 편수 제작업·추가 항목 발굴 조정·기초편집작업 기간 1991년-1993년
- 3차 / 본권 집필 및 출간기간 1994년-현재

**□ 참여인원**

- 총합집필가산지선진들을 모회하여 국내외 30여명 작업 (연 인원 30×365)

**□ 편수특징**

- 1700여 년만의 한국 불교술어의 최초 집필
- 평이한 한글 현대문으로 서술하여 용어를 반드시 병기하여 대중 화와 전문화의 요구를 아울러 충족하였음
- 풍물 언어를 본격 병기한자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포함으로써 佛學 佛經 佛典 등 다양한 배경어휘 내지는 전문사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임
- 같은 불교 술어일지라도 최대한 한국불교 찬술 문헌에서 그 용례를 실었음
- 시대순(초기불교 근원불교부파불교-대승불교말기-선불교)에 이르는 사상사적 변천과 지역순(인도불교-남방불교-티베트-몽골-대중·일본·한국 등 전지역에 이르는) 지역적 변화에 따른 종합사상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백과사전적·전문적 이해를 도모함
- 대장경류 및 기간의 원전 1,000여 권(高麗大藏經, 高麗藏經, 高麗藏經, 高麗藏經)을 집중 분석하여 용례화하였으며, 상세한 표기와 정확한 문헌표기로 용어이해를 위한 연구성격을 최대한 함
- 관련한학과 공학목을 통하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연결·이해하도록 하여 불교술어의 연쇄적 관심을 통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였음
- 특히 한 항목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서술하기보다 용례와 참고 문헌을 다양하게 밝혔으며, 한시점에서 보는 세계적인 사전편수 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확보했음 즉 독자적 체계공간 및 지평을 확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실어주는 것을 편수특징으로 삼았음
- 기초에 출간된 모든 불교 사전일련 소령양키 독일 영국 등 전 지역의 사전을 비평적으로 참고하되, 기초의 연구성과를 교정 추가 반영하였음
- 종교·역사·철학·문학·문화·의학 등 한국학 및 관련 연구자들의 필독서가 되도록 한 항목에 걸쳐 종합적이고도 다각적 서점을 최대한 확보 서술하였음

**□ 예산**

- 1982년-현재 40억 원 소요

**□ 양우 편찬 및 경영계획**

- 연서로 간행되는 현재 연간 2-3권간행 예정 (재정여건에 따라 원안이 조정됨)

불교대백과사전 "지관 편저, 가산불교대사림"이 본격출간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대작불사에 동참할 신심깊고 능력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 연구원 및 사원모집 : 모집부서-사전편찬실 상임연구원(0명), 기획연구실 사무국장(0명), 학술·편집간사(0명)**

1) 편찬실 상임연구원(0명)

① 지원자격

- 불교학·불교철학 전공자로 박사과정 수료 이상

②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중·장기 연구계획서 1부
- 연구목표 1부

2) 기획연구실 사무국장(0명)

①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자(인문학전공자 우대)
- 윤리헌신소지자, 병역필
- 한글 및 응용소프트웨어 사용 가능자
- IBM환경 전산시스템 운영 능숙자
- 기업체, 공공단체의 관리 및 사무의 경력우대

②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3) 기획연구실 학술·편집간사(0명)

① 지원자격

- 인문학 전공자 (불교학, 종교학, 철학전공자 우대)
- 한글 및 응용소프트웨어 사용 가능자
- IBM환경 전산시스템 운영 능숙자
- 학술·기획·편집 경력자는 우대

②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대우 - 경력에 따라 조정    ■ 전형방법 - 서류, 면접    ■ 연락처 - TEL: 765-9602/ FAX: 765-5673    ■ 원리안ID: DHATU